

#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

2021년 5월 30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근무 중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 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당사 및 협력사 임직원,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 여러분께 큰 염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당사는 현재와 같이 사회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여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하고 침통한 심정입니다.

고려아연은 사고 수습 및 관계기관의 사고원인 조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결과에 따른 모든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가족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작업장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5월 31일

**고려아연주식회사 경영진 일동**